"For your Tomorrow, We gave our today"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우리의 오늘을 바쳤습니다

말기암 투병 6.25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디씨

용호동 예문여고 찾아 자유·평화 주제 강연

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디씨가 예문여고 고유진 학생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6.25전쟁에 참전한 영국 군인 제임스 그룬디(80)씨가 UN평화문화특구로 지정된 남구를 찾아 여고생들과 뜻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그룬디씨는 지난 6일 오후 용호동 예문여고를 방문해 자유와 평화를 주제로 강연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1951년 2월부터 1953년 6월까지 영국군 27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을 치른 그의 이번 방문은 예문여고 UN평화사랑회(회장 고유진) 학생들의 강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그룬디씨는 강연에서 "'For your Tomorrow, We gave our today'라는 문구를 간직하며 힘들 때마다 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희망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한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UN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는데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격스럽다"며 "참전용사들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룬디씨는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전쟁 당시 아기를 안은 채 얼어 죽은 젊은 엄마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를 예를 들며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며 강연을 마쳤다.

고유진 양은 학생을 대표해 "19세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여한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척추암을 앓고 있는 그룬디씨는 지난해 부산UN기념공원에서 일하는 박은정씨를 수양손녀로 삼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1일 수양손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자비를 들여 한국을 찾은 그는 2주 동안 머물며 경주 등을 둘러보고 돌아갔다.

주영란 기자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 UN공원 참배

자유·평화위해 산화한 전우 넋 기려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들이 전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UN기념공원을 찾았다.

유엔군으로 참전한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들이 지난달 22일 전우의 영령이 안치된 UN공원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이번에 UN공원을 찾은 참전용사들은 6.25전쟁 당시 설마리 전투와 가평 전투에서 10배가 넘는 중공군을 막아 서울방어를 가능케 했던 베테랑들로 한국전참전부대 현역 후배 130명과 함께해 이날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국가보훈처가 해외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방한사업의 하나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영국 합참의장 도나휴(Kevin O'Donaghue), 호주 참모총장 길레스피(Gillespie), 뉴질랜드 참모총장 팀 키팅(Tim Keating) 등 4개국의 장관급 이상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참전용사 행진, 추도사, 헌화 순으로 진행된 추모행사를 마치고 UN기념공원에 설치된 국가별 참전비를 참배했다.

참전용사들은 24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임진강전투 60주년 기념식과 가평전투 60주년 기념식 등 국가별 전적지와 참전 기념비를 방문했다.

영연방 4개국은 9만4,000명을 한국전쟁에 참전시켜 1,750여명의 사상자를 포함해 7,500여명의 인명손실을 입었다.

한편 국가보훈처의 재방한사업은 해외참전용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을 쏘아올린 구두수선공

남구구두수선협회지역아동센터에

성금 50만원 전달하며 사랑 나눠

지난 9일 용호동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랑의 전달식이 열렸다.

따듯한 사랑의 주인공은 '남구구두수선협회' 회원들로, 용호지역아동센터를 찾은 회원들은 지난 1년 간 모은 모금액 50만원을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는 말과 함께 센터에 전달했다.

현재 1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남구 구두수선협회' 회원들은 각 점포마다 모금함을 하나씩 비치해두고 있다.

현재 남구 구두수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종원씨는 가끔씩 오해하는 손님들이 있어 일일이 설명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회원들의 뜻을 대견하게 여기고 선뜻 수선비를 대신해 돈을 넣는다고 한다.

점포 안에 모금함을 비치해둔 것은 2년 정도 되었지만, 모금함을 비치해 두기 전에도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할 때마다 회비를 내어서 적립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적립된 돈이 일정 금액에 달하면 독거노인 돕기, 불우한 학생들 장학금 전달 등 좋은 일에 사용됐다.

현재는 각 점포에 비치해둔 모금함 외에도 병뚜껑을 담을 수 있는 자루를 만들어 남구에 있는 몇몇 식당에 비치해 두고 있다. 그렇게 모아진 병뚜껑은 수거 후 분류해서 판매되는데, 이익금은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류진아 기자

남구구두 수선협회 회원들이 용호지역아동센터에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 사람과 사람

출판기념회 열어

김형석 본지 편집위원은 지난달 28일 저녁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신의 첫 번째 시집 '들꽃은 갈망할 때 핀다'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김형석 시인은 '시의 나라' 신인상으로 등단했고 부산시인협회 회원, 푸른별문학회 회원, 한다사문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부산시장상 받아

안갑상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 명예회장이 지난 2일 청소년의 달 모범 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식에서 부산광역시장상을 받았다.

안 명예회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 오고 있다.

특히 나라의 기둥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계몽하고 선도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최선 다한 업무처리가 최고서비스

오륙도 친절지기

대연4동 윤아솔씨

대연4동주민센터에 들어서면 맨 먼저 마주치는 얼굴이 있다. 바로 윤아솔씨다. 민원인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감동은 윤아솔씨의 밝은 미소와 친절이다.

고선주씨는 1년 전 외국에 있는 손녀딸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했었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 주어 기분이 좋았다.

가끔씩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하면 잊지 않고 "손녀딸 잘 크나요" 하면서 기억해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아솔씨가 너무 아름다웠다.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윤아솔씨에게 감사의 박수와 친절카드를 함께 보냈다.

먼저 인사하고 다가가는 친절로

민원인들에게 감동 안겨줘

또한 정강수씨와 박정희씨도 너무 친절해서 감동받았다. 신분증 분실과 민원서류 발급 차 방문했다. '공무원들은 불친절 할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조금 뒤 알 수 있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서류를 꼼꼼히 최선을 다해 잘 처리해 주었다. 같이 근무하는 이용건씨와 이대희씨도 함께 칭찬하고 싶다며 감동의 엽서를 보내왔다.

윤아솔(지방행정서기보·25)씨는 2009년 공직에 첫 발을 들였다. 사회초년생이라 아직 서툴다며 겸손해 하는 그녀.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은 나이 드신 분이 많단다. 그녀는 인상착의와 이름까지 잊지 않고 먼저 인사하며 다가가는 친절마인드를 실천하고 있다.

항상 곁에서 지지해 주는 가족이 있어 든든하다고 하는 아솔씨. 특히 경찰이신 아버지께서 훌륭한 공직자가 되라는 격려의 말씀을 자주 해 준다며 아버지의 말씀을 새기며 근무에 임한다고 한다.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보면 그 결과는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옴을 믿는다며 오늘도 윤아솔씨는 대연4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최정순 기자

■모범 다자녀 가정으로 선정된 하재권·노혜선씨 가정

7명의 천사들 웃음소리가 행복

21세기 저출산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아 아름답게 키우고 있는 다복한 가정이 있어 연일 화제다. 지난달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부산지역 남구지부 창립대회 출범식에서 모범 다자녀 가정으로 선정된 하재권(감만1동·45)·노혜선(41)씨 가정이 그 주인공이다.

하씨 부부는 슬하에 두경(군복무중), 동겸, 장미, 장빈, 장금, 장영, 백록(1살), 이렇게 3남 4녀를 두고 있다.

가장인 하씨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부인 노씨 역시 자녀들의 재롱에 취하다 보니 어느새 연달아 일곱 번째까지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노씨는 "첫아들과 둘째딸 출산 후 또 셋째로 딸을 낳게 되었는데, 하나 둘 낳다 보니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재미있다"며 다자녀를 두게 된 동기에 답한다.

또한, "요즘은 한 자녀 키우는 가정이 많아서 자녀들이 자기중심적인 성격이 되기 쉬운데, 큰아이가 동생들을 챙기고 돌보면 동생들 역시 스스로 따르는 등 모범적으로 행동하여 그저 행복하기만 하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아이들 양육보다는 주위의 시선이나 경제적 형편으로 마음고생도 하게 된다고. 일용직 근로자인 가장의 수입으로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이 힘든 실정이다.

동생 돌보는 모습 보면 가슴 뭉클

어려운 형편 불구 아이들 꿈 무럭무럭

현재 그들이 세든 곳은 큰길 가 도로변에 있는 술집 이층집이다. 소음이 많고 컨테이너가 지나는 곳이라 마음대로 아이들을 밖에 내보낼 수도 없다. 그들의 소망은 하루빨리 임대주택에라도 입주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하지만 이들 가족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부자다. 비록 낡은 집의 좁은 방이지만 작은 게임기 하나를 놓고 서로 코를 박은 채 열중하기 바쁘고, 얼마 전부터 키우기 시작한 토끼의 재롱을 보느라 시간을 잊는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이웃에서 한 아주머니가 자녀의 작아진 옷가지를 한아름 챙겨왔다. 노혜선씨 얼굴에 봄빛 같은 환한 웃음살이 번진다.

김정화 기자

대호레포츠 회원모집 합니다

수영·헬스·에어로빅·아쿠아로빅 (수시모집)

※ 전 종목 대폭 할인행사

위치 : 유엔로터리에서 외국어대학 방향 150m 지점

☎ 627-0027~8

남구주민 컴퓨터 교육 특강 개강 : 2011년 6월 1일

수강료 : 6만원 월, 수, 금 10 : 00~10 : 50 (10명)	초보자 컴퓨터 확실히 익히기 인터넷검색, 이메일 보내기, 카페만들어 사진올리기, 엑셀
대상 : 남구주민(주부, 노인, 실직자) 선착순 10명	

국비 노동부 계좌제(실업자) 훈련안내

과정명	개강일	교육기간	교육시간	정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CAD실무	6월 개강 (학원문의)	2개월	11 : 00~13 : 00 (월~금, 주5일)	10명	12만원	48만원
전산실무자격증 (워드, 엑셀자격증)			11 : 00~13 : 00 (월~금, 주5일)	10명	10만원	40만원
사무직전문가과정 (엑셀, 파워포인트)			13 : 30~15 : 30 (월~금, 주5일)	10명	10만원	40만원

대학졸업자, 일반실업자, 주부 취업을 원하시는 분(교통비 월 5만원 지급, 선착순 마감)

대연부경정보처리학원 ☎ 622-7296

지하철 경성대역 6번출구, CGV(영화관)옆, 베이직하우스 8층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뻐근하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7 : 00~8 : 20, 10 : 30~11 : 50
오후 6 : 00~7 : 20, 7 : 30~8 : 5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연5동 기아자동차 옆)